증애심 소멸, 정법 현현의 첩경



지안 스님의 〈선화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승찬(僧璨: ?~606)대사는 출가 전에 풍질(風疾)이란 병을 앓고 있었다. 병고에 시달리던 그가 어느 날 혜가 스님을 찾아갔다. 대뜸 자신의 병이 죄의 소산이니 자신의 죄를 참회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혜가(慧可)가 "죄를 나에게 가져 오라. 그러면 죄를 참회시켜 주겠다" 하였다. 잠깐 생각하던 승찬이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혜가가 다시 "그대의 죄는 내가 참회시켰다. 그대는 이제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에 의지해 살아가라" 하였다.

두 사람은 대화를 더 나눴다.

"지금 스님을 뵈옵고 승보(僧寶)는 알았으나 어떤 것을 불보(佛寶)와 법보(法寶)라고 합니까?"

"마음이 부처이며, 마음이 법이니라. 부처와 법이 둘이 아니며, 승보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제야 비로소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며,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른바 안심법문(安心法門)이라고 알려지기도 한 이 이야기는 승찬대사의 출가 인연 이야기다. 승보의 보배구슬과 같다고 승찬(僧璨)이라 이름을 지었다. 병든 몸으로 출가를 했으나 나중에 복광사(福光寺)에서 구족계를 받고 병도 나았다고 한다. 적두찬(赤頭璨)이란 별명도 얻었는데 병을 앓고 난 뒤 머리털이 모두 빠져 대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가의 법을 전해 받은 승찬은 선종 3조가 되었으나 한동안 은둔생활을 하면서 지냈다. 그가 남긴 불후의 명저(名著) 〈신심명(信心銘)〉은 선종사에서 높이 평가되는 역작이다. 4언 146구 584자로 비교적 짧은 글이지만 선의 핵심요체를 담고 있는 운문형식의 명체(銘體)의 글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는 일 없으면 환히 트여 명백하리라."(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

많이 회자되는 〈신심명〉의 처음 나오는 4구다. 여기서 말하는 도(道)는 깨달음 자체 곧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말한다. 무상정각(無上正覺) 혹은 무상대도(無上大道)라고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열반경〉에도 '마음이 있는 자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 하였다.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 '지도무난'이다.

선가에서 해 온 속된 말에 '도를 깨치는 것은 세수하다 코를 만지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고 하기도 했다. 간택이란 취하고 버리는 분별의식을 말한다. 이것과 저것의 상대적인 차별 속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소견을 가질 때 마음에 집착이 생기며, 이 집착으로 인해 도를 등지게 된다.

'무심이 도다(無心是道)'라는 말이 있듯이 식심(識心)이 일어나 마음이 출렁거리는 파도처럼 되면 도의 본체에 계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도를 장애하는 근본 요인은 바로 식심 분별이므로 이것만 없으면 도는 쉬운 것이란 말이다. 미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에 움직이는 인간의 의식작용이지만, 이것이 바로 어떤 관념의 고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이다. 도를 보는 데 있어서 증애심이 있으면 정법을 보는 눈이 흐려져 도의 당체를 보지 못하므로 증애심이 없어지기만 하면 도는 하나도 막힘없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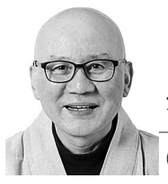
이상의 4구가 〈신심명〉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주(北周) 무제(武帝)의 법난을 만나 승찬은 환공산(皖公山)으로 들어가 숨어 지내다 수(隋)나라 개황때(592) 4조가 된 도신(道信)을 만난다. 〈경덕전등록〉 3권에 도신에게 전한 전법게(傳法偈)가 소개되어 있다.

"꽃씨가 비록 땅에 심어져 땅에서 씨가 꽃으로 자라지만 아무도 씨를 심지 않는다면 꽃이 땅에서 필 수가 없으리라."(花種雖因地 從地種花生 若無人下種 花地盡無生)

승찬대사의 입적(入寂)에 대해서는 나무 밑에서 합장을 하고 선채로 돌아갔다고 전해진다. 승찬대사가 최초로 입망(立亡)을 한 사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생로병사의 고해를 건너다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③금강경 초설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압축하여 일백육십자로 줄인 경이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입니다. 금강경은 보살10지(菩薩十地)의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혜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혜지, 법운지와 4선정(四禪定)의 4선인 초선(初禪), 이선(二禪), 삼선(三禪), 사선(四禪)과 사정(四定)의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의 뜻을 담아 나타낸 경입니다.

보살 초, 2지가 초선과 공무변처정이고, 3, 4지가 이선과 식무변처정이며, 5, 6지가 삼선과 무소유처정이고, 7, 8지가 사선과 비상비비상처정이며, 9, 10지가 멸진정(滅盡定)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에 조견오온개공하여 도일체고액이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5온(五蘊),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생, 노, 병, 사의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넜다'고 하였습니다.

금강경 32분 가운데 '법회유인분 제 1'부터 '장엄정토분 제 10'까지는 색이 공함을, '무위복승분 제 11'부터 '지경공덕분 제 15'까지는 수가 공함을, '능정업장분 제 16'부터 '법신비상분 제 26'까지는 상이 공함을, '무단무멸분 제 27'부터 '지견불생분 제 31'까지는 행이 공함을, '응화비진분 제32'는 식이 공하여 멸진정에 해당합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순번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보살10지	초, 2지	3, 4지	5, 6지	7, 8지	9, 10지	등 각 (等覺)
4 선	초 선	2 선	3 선	4 선		
4 정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멸진정	묘 각 (妙覺)
5 온	색	수	상	행	식	
금강경 32분	제1분 제10분	제11분, 제15분	제16분 제26분	제27분 제31분	제32분	

보살 10지는 비록 깨달음에 차등이 있으나 모두 성인(聖人)의 경지입니다.

금강경을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으로 행하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깨달음은 보살 10지에 해당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행하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며, 과연 우리들은 이와 같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6조 혜능 선사는 일자무식의 가난한 나무꾼으로 어느 날 여관방을 지나치다가 우연히 어떤 스님이 읽는 금강경 구절인,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이 날 것이니라. 마땅히 모양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날 것이며, 마땅히 소리와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날 것이며, 마땅히 머물지 않으면 이 마음이 날 것이니라" 이 구절을 듣고 홀연히 깨달고 훗날 5조 홍인 선사를 뵙고 다시 크게 깨닫게 됩니다.

황벽 선사는, "이른바 밝고 정밀한 성품인 일정명(一精明)이 나뉘어 6화합(六和合)이 된다고 하였다. 일정명이란 바로 한 마음(一心)이요, 6화합이란 6근으로, 이 6근은 각기 6진과 (눈은 색과, 귀는 소리와, 코는 냄새와, 혀는 맛과, 몸은 촉감과, 뜻은 법과) 제각기 합한다. 그런 가운데 6식을 내어 18계(十八界)가 된다. 만약 이 18계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안다면 6화합이 하나로 묶여 일정명이 된다. 일정명이란 곧 마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느 날의 일기

"티베트의 망캉 터미널은 버스와 트럭이 함께 사용하는데 정기노선버스는 일주일에 세 번이고 트럭은 목재며 시멘트 등을 싣고 줄곧 드나듭니다. 이틀째 온수는커녕 찬물도 나오지 않는 터미널 2층의 낡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썰렁하게 몸살을 앓은 후 터미널 인근의 국수와 찐빵을 파는 가게의 늙은 아줌마와 타협이 어렵게 이루어져 코리안 누들(신라면) 5개 값을 선 지불 후 아궁이에 불을 지펴 한 솥의 뜨신 물로 가려진 곳을 찾아 늙은 아줌마가 곁눈질을 하든 말든 홀라당 벗고 땀 지린, 곰팡이로 찌든 몸뚱이를 번개처럼 빠르게 씻었습니다. 적은 물이었지만 그래도 신체의 중요 부분은 깔끔, 말끔은 아니더라도 치약을 비누삼아 씻었습니다. 대충 빠른 목욕을 끝낸 후 국수집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날아갈듯 가뿐하게 졸고 있는데 예쁘고 키 큰, 그러나 형색이 말이 아닌 아가씨가 빼꼼히 얼굴만 들이민 채 '워 야오 취 망캉(나는 망캉에 가야합니다)'을 제법 큰소리로 슬픔에 젖은 지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허름하고 낡은 옷에 신발은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 어느 몹쓸 사내의 몹쓸 인연이 툭 튀어 나온 아가씨의 배 안에서 슬프게 힘에 겨워 보입니다. 곱빼기 국수 한 그릇에 찐빵 한 접시를 내밀자 그녀는 앉지도 않고 서있는 자세로 몇 초 사이에 국수 한 그릇을 국물까지 말끔히 들이켰습니다. 먹지 않은 찐빵을 비닐봉지에 담아 돈 몇 푼과 배낭속의 겨울용 파카를 그녀에게 입혀주자 그녀는 고맙다는 눈인사도 없이 빵 봉지를 팽개치고 입혀준 파카도 벗어 던지며 눈발이 듬성듬성 날리는 거리로 사라지고 맙니다. '워 야오 취 망캉'을 외치면서…. 망캉에 와서 망캉을 찾는 처절할 만큼 가엾은 배부른 아가씨는 진리 속에서 진리를 찾는 항시 배고픈 나의 또 다른 모습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콧등이 찡하게 가슴이 먹먹하게 아팠습니다."

티베트에서 머문 3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이 숱하게 널려있다. 몇 권의 책으로 써 내려가도 부족할 만큼 티베트는 별천지였고 새로운 환경의 고산증을 달고 다니는 고통과 아픔의 고행(苦行)이었다.

가난한 불교나라, 오체투지의 신앙이 생활화 된 나라, 옴 마니 반메 훔이 생활염불이 되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며 감사할 줄 아는 나라, 남자나 여자나 키 크고 건장한, 행복을 키우며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나라, 진솔함이 무엇인지 해맑은 미소로 정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이 그립다. 일상생활이 그립다.

티베트의 3대 도시인 라싸와 시가채, 창뚜에는 그럴듯한 호텔이 버젓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에는 뜨거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전기불도 수줍어 가물거리는 게스트하우스가 숨죽이며 띄엄띄엄 박혀 있을 뿐이다. 배부른 아가씨를 만난 망캉 역시 숙소의 화장실은 건물 밖 터미널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했고 방마다 공급되는 세숫대야에다 소변 등의 간단한 것은 처리하도록 허용된다. 당시 나는 울고 싶어도 목이 부어 울 수도 없고 말하고 싶어도 입술이 부르터 자유롭지 못할 때였다.

그때 국수집에서 번갯불처럼 목욕하고 나른한 행복에 젖어 꾸벅꾸벅 졸고 있을때 배 부른 아가씨를 만난 것이다. 망캉에 와서도 망캉에 가야한다는 아가씨의 외침은 눈발로 흩어지는 슬프디 슬픈 절규였다. 몹쓸 인연은 저리도 힘겹고 질긴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만난 뒤의 후유증인 것이다. 착한 인연은 행복을 키우지만 나쁜 인연은 자유를 빼앗아가는 법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만 둘이 있을 때도 틈이 생기고 벽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몹쓸 인연은 자유를 빼앗아간다
혼자든 둘이든 마음 비우고 살라

홀수일 때는 외로워도 기다림의 기대가 설렘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짝수일 때의 외로움은 삭풍이 몰아치는 허허벌판의 비애와 절망을 느낄 터이다.

남영추라는 사람이 도(道)를 배우기 위해 혼자서 노자를 찾아왔다. 그의 장황한 말을 듣고 노자는 꾸짖는다. '그대는 도를 배우겠다며 이리도 많은 사람을 데려왔는가?' 생각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도 또 다른 마음속 사람으로 질타한 것이다. 홀수든 짝수든 마음 비우며 살 일이다.

(사)세계불교법왕청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금강계단 대합동 대설법전

(미얀마 삼사 아사리 주석사찰 친견 대설법전)

불조의 법맥을 전해 받은 수법제자로서 스승의 법통을 이어받아 四種教授의 가르침을 받고 四種鉤印하여 지구촌 모든 중생의 스승이 되길 기원하는 대설법전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계대화상과 3師7尊證阿闍梨께서 법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전수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법왕님과 법상자간에 因緣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서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얽혀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三師七尊證 阿闍梨 큰스님들을 찾아 뵙고 예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지라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世界佛教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大法會 2016.10.5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일 정 : 2017년 丁酉年 3월 1일 출발 (6박 7일)

■ 대설법전 :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 대설법전,
미얀마 삼장법사 주석사찰 대설법전,
양곤 불교회장 주석사찰 대설법전,
짜익티오 성 파고다 대설법전

■ 참가자격
- 5회에 걸친 세계불교지도자 합도 금강계단 수계자 전원
- 수계 희망자 사부대중 누구나

■ 참가신청 (미리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02)737-5665, 010-3618-6061
봉행위원장 010-8930-1785 / 기획실장 010-4467-9600

관리본부장 : 성각 대종사 합장

존증아사리 : 혜정. 남륜. 인경. 혜담. 제성. 현담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법왕 비서실장 대승정 목탁 / 봉행위원장 대종사 대공 법혜 합장